

02

교육 현장에서의 페미니즘,
왜 필요한가?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김영선 초등성평등연구회 연구위원

들어가며

지난 1월 6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초, 중, 고등학교의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되었고 불과 한 달 만에 21만 3,219명의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여 청와대에서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의 골자는 페미니즘 교육을 포함하여 성평등을 통합한 인권교육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계획하여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개월이 지날 때까지 학교 현장에 있는 필자는 관련된 그 어떤 변화의 움직임을 체감하지 못하였고 반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요즘에 들어서야 ‘무언가를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부정확하고 모호한 느낌을 받고 있으나 이 역시도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회를 통해 들어오는 각종 자문이나 요청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필자와, 청원에

동의한 21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는 꽤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인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교육 현장에 작은 무언가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만연하게 성평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국가와 교육부처에서 안일하게 대해 왔는지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대체 왜 저리도 많은 사람들은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며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자고 목소리를 냈던 것일까.

페미니즘 교육과 그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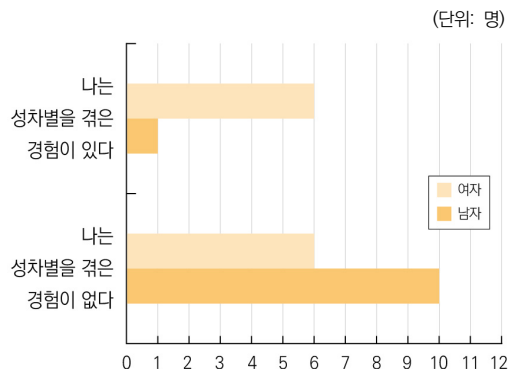
우선,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기 전에 페미니즘과 페미니즘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언급해야 할 것 같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남성 중심적인 보편성과 표준성으로 인해 발생

하는 착취와 억압을 해소하자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이라는 단어가 제시되어서인지 페미니즘은 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남성에 반하는,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사상으로 왜곡되어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 그 어떤 인간 존재도 세상에 태어나면서 비자발적으로 얻게 된 생물학적 '성'으로 인해서 차별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행해지는 차별과 그로 인한 억압과 착취를 없애자라는 흐름과 논의가 왜 다른 성을 가진 이들을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답할 따름이다. 나아가 페미니즘은 성별로 인한 차별이 합리적이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기준과 정의에 대해 반문한다.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우월하다는 기준을 토대로 규범화 된 기존의 규범에 대해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여성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성과 남성성 자체의 존재에 의문을 던지고 하나의 성에만 편향된 규범과 기준에 따라 사회 규범을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페미니즘 교육 역시 여성성과 남성성을 구별하는 그 자체에 대해, 기준과 정의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을 시작점으로 하여 교육의 방향을 잡아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종합해 보면 페미니즘 교육은 큰 틀에서 볼 때 인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나의 '성별'과 상관없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소중하며 자신의 '성'으로 인해 차별하거나 차별 당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교육이 어디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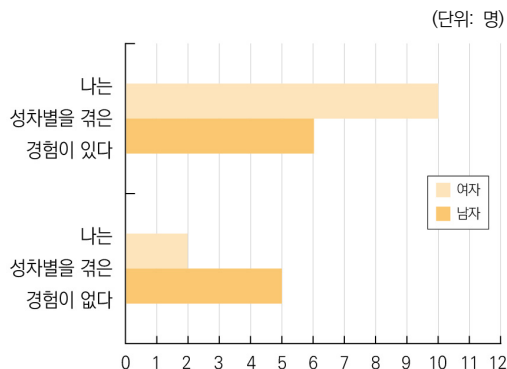
교육현장의 성차별

필자를 포함한 주변 다수의 교사들이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교육 현장에서 마주한 아이들이 행하는 여성 혐오 발언과 행동의 생활화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습득하여 아이들 속에 자리잡은 성차별적 인식들로 인해 아이들이 나답게 지내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였다.

아이들은 아직 정립된 자신만의 가치관을 갖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를 바라보며,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가치판단을 하여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기에 부족한 존재이다. 그렇기에 학교라는 사회 공간에서 선생님과 급우들과 함께 배우며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사회를 보는 관점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 옳고 그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적 관점과 가치관을 정립하기 전에 이미 혐오로 둘러싸인 사회와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올바른 판단을 할 기회도 가져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아이들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혐오를 하는 자와 혐오를 당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자신도 모르게 차별적인 성관념에 간혀버렸다. 특히 아이들이 흔히 하는 것이 언어를 사용한 혐오 표현인데, 아이들은 '말과 언어'가 가진 강력함과 무서움을 신기할 정도로 몰라 당혹감을 줄 때가 많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유행어처럼 사용하는데 그 말들이 여성 혐오 표현이 대부분이라 가끔은 참담한 심정을 느낄 정도이다. 요즘 남자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복도에서 마주치는 여자 친구들에게 여성 성기를 비하하고 조



[그림 1] (성차별 사례 및 개념) 이해 전 설문조사 응답결과



[그림 2] 이해 후 설문조사 재응답결과

룸하며 만든 온라인 상에서 파생된 말을 쓰기도 하고, 친구들과 사소한 약속을 하며 ‘느금마’, ‘앰창’ 등과 같은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어떤 고민이나 죄책감 없이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여성 혐오의 말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아이들은 사회에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들어온 고정된 성역할과 관념으로 인해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학급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기본 방향의 한 바탕을 페미니즘 교육으로 정하고 학급을 경영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맡고 있는 필자가 페미니즘 교육을 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학기 초 ‘나는 성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을 한 적이 있었다. 결과는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남자 아이들 대다수와 여자 아이들의 절반은 ‘성별로 인한 성차별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답을 하였다.

그리고 단 한 명의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들 중 절반은 남자라는 이유로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며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의 성차별 경험을 이야기하는 급우들

의 발표를 듣고 나자 성차별을 당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던 아이들의 대다수가 생각해보니 자신도 성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손을 들며 자신이 겪은 차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가면서 재응답하였다. 즉, 아이들의 인식 속에서 자신이 당한 행위가 성별로 인한 차별 행위였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할 만큼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다. 자신이 겪은 성차별 사례를 발표하겠다고 손을 번쩍 든 한 여자아이는 목에 빨간색 띠를 세워가며 흥분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구정 연휴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시간이 남아 남동생과 캐릭터를 색연필로 칠하며 꾸미는 컬러링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친척 할아버지 한 분이 큰 소리로 남동생에게 ‘사내놈이 기지배랑 앉아서 색연필로 그림이나 그리고 있냐! 고추 떼라!’라고 하시며 혼을 냈다고 한다. 아이는 동생이 혼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컬러링북을 색칠한 자신도 뭔가를 잘못된건 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동생이 자기 때문에 혼난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 했다. 그런데 혼이 나고서도 같이

컬러링북을 색칠하겠다는 동생을 보면서 ‘동생은 동생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건데 왜 혼이 나야하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대체 자신과 동생이 무엇을 잘못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할아버지께서 대뜸 소리지르며 욕을 하셔서 억울하고 무서운 마음에 그만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했다. 성차별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때 자신이 왜 그렇게 억울했는지 알 것 같다고 했다. 자신과 동생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어른들의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즉 할아버지의 사고 속에서 남자인 동생이 여자들이나 하는 색칠놀이를 하고 있어서 혼이 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남녀평등시대로 일컬어지고 있는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10년, 20년 전과 같이 여전히 성별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제시된 [그림 2]의 설문조사 재응답 결과를 보면 70%에 해당하는 학생이 성차별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여자 아이들이 겪는 성차별 경험이 남자 아이들이 겪는 경험보다 더 심하고 빈도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그럴 것이라는 가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이 적긴 해도 앞서 제시한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차별을 겪은 경험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남자 아이들은 9%에 해당하는 단 1명만 그렇다고 대답했으나, 여자 아이들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6명의 아이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사례에 대한 설명을 이해한 후 시행한 재조사에서도 남자 아이들은 55%에 해당하는 6명의 아이들만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했으나 여자 아이들의 경우는 83%에 해당하는 10명의 아이들이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재응답하였다. 물론, 필자가 한 조사 결과가 전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성차

별 경험 유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23명의 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성차별 경험 수치가 확연히 차이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아직 사춘기도 오지 않은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마주하는 사회 속에서 성차별을 겪고 있으며, 여자 아이들은 성차별적 상황에 남자 아이들보다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아직도 사회는 남자 아이들에게 대개 남자답고, 울면 안 되고, 운동이나 게임을 잘 해야 하며, 조용히 책을 읽기보다 뛰어노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있게 큰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분홍색이나 노란색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도록 하며 아이들은 이러한 사회의 성차별적 관습에 젖어 이것이 차별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검열하며 자신의 기호와 무관하게 자신이 가져야 할 성격, 좋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인지를 하며 스스로에게 되뇌인다. 여자 아이들은 또 어떠한가.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과 비교하여 볼 때, 더 심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남자 아이들의 검열 항목에 외모와 관련된 것들이 더 추가되기 때문이다. 여자니까 조신해야 하고, 큰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면 드세다는 말을 듣고, 운동장에서 뛰어 놀거나 축구를 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고, 공기놀이나 책읽기 또는 그림그리기를 하는 게 당연하고 파랑색, 검정색을 선택하기보다 분홍색을 선택해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검열 항목들과 더불어 미디어의 영향 탓에 몇 살 차이나지 않는 아이돌 가수들을 보며 그들의 몸무게, 얼굴, 화장법을 미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코르셋이 되어 스스로를 억압하고 검열한다. 초등학교 중학년 때부터 아침 등교 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거울 앞에서 화장하는 일이 되어버린 아이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여

자 아이들은 화장을 안한 날에는 모자를 눌러쓰고 와서 하루 종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틈이 날 때마다 앞머리가 갈라지지는 않았는지, 입술에 각질이 보이지 않는지, 얼굴에 여드름이나 잡티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남자 아이들은 그런 여자 아이들을 ‘여자애가 왜 저렇게 똥똥해?’ 또는 ‘여자가 화장도 안하고 그게 뭐냐, 남자냐?’라며 놀리기 일쑤다. 또 몸무게의 앞자리가 3이나 4를 넘는지 확인하며 누군가 살이나 몸무게를 언급하면 한창 성장기라 영양공급이 필수인데도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급식을 안 먹는 경우도 있다. 결국 아이들이 이렇게 도를 넘은 자기 검열로 인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자신을 보지 못하며 사회가 제시한 이분법적 구별과 그로 인한 성차별적 시각과 인식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에게 ‘나다움’이라는 말은 사라진지 오래다. 남자라서, 여자라서,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래야 한다고 사회로부터 학습된 것들로 인해 꾸준히 스스로를 검열하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아직 자아가 약한 아이들의 자존감은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순순히 가치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판단해 버린다. 이런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변화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성인이 되어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가정해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불행한 사회가 될지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성별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하는 인격체들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과 억압을 받고 스스로를 움아매는 사회에서 어찌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며, 다른 수식어 없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 갈 수 있겠으며 우리나라가 성 평등한 사회로 나

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기에 우리는 성 평등 교육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혐오의 주된 대상이 된 여성이 어떤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페미니즘 교육의 시도

필자가 페미니즘을 기본 골자로 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교육 자료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과 둘째, 교사 개개인에게 주어진 자율성 내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페미니즘 교육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체계화,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공교육의 대표적인 교육 자료는 교과서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아직도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어 유일한 지침의 역할을 하는데 역할이 지닌 무게에 비해 성차별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엄마로 대변되는 성인 여성은 분홍색 레이스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일을 하고, 아빠로 대변되는 성인 남성은 양복을 입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를 하는 삽화들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인물에 대해 소개하는 단원에서도 남성 인물만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이 매일 마주하게 되는 교과서를 통해 무의식중에 성차별적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교과서에 실린 그림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매일 학교에 와서, 매일 보는 책에, 동일한 차별적 요소가 깃든 내용이 실려 있다면 그 영향력은 아이들에게 무시할 수 없

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미디어나 텍스트를 접할 때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 그 영향력은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필자가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별에 따라 할 수 있는 직업과 할 수 없는 직업이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설명했었고 아이들은 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직업은 성별로 분류되지 않음을 알았다. 그런데 교사인 필자의 말과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의 삽화나 그림책 또는 만화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에서는 상충된 내용이 실려 있었다. 아이들은 ‘내가 여자라서 또는 내가 남자라서 할 수 없는 직업은 없다.’라고 배웠지만, 여자 소방관이나 남자 무용수에 대해 정확히 꼬집어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뭔가 이상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다. 즉, 학교에서 배운 것과 일상에서 마주하며 느낀 것의 부조화를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이 접하는 교과서를 포함한 교육 자료들은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이지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교육자료나 미디어들이 성평등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페미니즘 교육은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필자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이들은 아직 자아와 가치관이 완벽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들이다. 페미니즘 교육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지 않을까.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과정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을 알아보는 단원이 실려 있다. 이 단원 내용 중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알아보고 그들의 삶이 지역과 사회에 준 영향을 파악함으

로써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자의 학급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조사하여 ‘나만의 역사책 만들기’로 단원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 교과서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시·도에 다르게 제공되는 지역화 보완 교재 중 필자가 재직 중인 서울의 지역화 보완 교재인 ‘서울의 생활’에는 단 한명의 여성 역사적 인물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역사적 인물을 조사할 때 반드시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을 각 2명 이상씩 조사하기로 하였는데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교과서와 보완 교재에 단 한 명도 여성인물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 컴퓨터실 등에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역시 쉽지 않았다. 아이들이 ‘선생님, 김만덕도 돼요?’, ‘선덕여왕도 돼요?’라고 묻기 시작했다. 이유인즉슨, 남성 역사적 인물들과 달리 여성 역사적 인물은 책 자체가 별로 없고, 있다고 한들 서울과 관련된 인물만 추려놓거나 따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조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결국 인물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하도록 하였다. 관련 학습 활동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물었다. ‘왜 여성 인물은 찾기가 어려웠을까?’에 대한 답으로 아이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남성 인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서요.’, ‘예전에는 여자는 집안일만 하고 남자는 큰 일을 해서 여자들의 업적이 별로 없어서요.’ 등의 대답들이 나왔다. 그리고는 덧붙여 ‘너무 차별적이에요.’, ‘남자만 위대한 업적을 가진 인물이라고 제시되는 것은 너무 성차별적인 일 같고 마치 저는 여자라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성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여성 인물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데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게 너무 충격이에요.’라는 의견들도 이야기하였다. 만약, 주어진 교과서로만 수업했다면 아이들은 이런 생각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가진 교육 자료라 하더라도 페미니즘 교육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아이들에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페미니즘 교육의 가능성

아이들이 가진 성차별적인 인식과 가치관이 교육을 통해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필자는 답임으로 말하고 있는 아이들과 담당하고 있는 동아리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초등 교육과정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년에 16시간 가량의 동아리 활동을 하도록 시수가 제시되어 있다. 필자는 3·4학년 여, 남학생 48명을 대상으로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한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아이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좋아하고 즐겨보는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보고 기준이 되고 보편성으로 제시되는 남성성에 대해 분석해 보며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이들의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아이들이 맞이하게 될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며 이러한 차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동아리 첫 시간에 필자의 학급 아이들에게 던졌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했었다. ‘여러분은 성차별을 겪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4학년 아이들보다 더 어린 3학년 아이들이 절반이 섞여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었다. 그러나 동아리 회기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은 성차별의 의미와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성차별에서 기인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나아가 실제로 자신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보고 접했던 만화, 그림책, 동화책, 각종 TV 프로그램 등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선별해내는 활동까지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한 번은 아이들에게 유명한,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만화에 대해 아이들과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해당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의 수를 세어보고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의 수를 분리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여자, 남자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이나, 장신구에 대해서도 분리하여 적어보게 하고, 캐릭터의 특징도 분석하도록 하였다. 아이들은 5개의 만화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4개의 만화에서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 중 남자 캐릭터의 수가 여자 캐릭터의 수보다 많았으며, 남자 캐릭터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등의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되었는데 반해, 여자 캐릭터는 거의 분홍색 또는 보라색으로 한정되어 표현되었다. 또한 남자 캐릭터의 경우 장신구도 모자, 안경, 운동기구, 시계 등으로 다양하였으나 여자 캐릭터의 경우는 리본, 프릴과 같은 무늬를 기반으로 한 머리띠, 목걸이 같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캐릭터들의 말투 역시 남자 캐릭터에서는 아이들이 ‘호기심 많음’, ‘용감함’, ‘장난꾸러기’, ‘활발함’ 등의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여자 캐릭터의 경우 ‘상냥함’과 ‘친절함’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아이들은 활동을 통해 자신들에게 친숙한 만화에서 등장 캐릭터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확연한 차이를 분석을 통해 확인한 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냈다. 아이들은 만화는 여자, 남자 어린이 모두가 보는 것인데

대부분의 만화에서 한 쪽의 성별을 지닌 캐릭터가 등장 캐릭터 수 대비 많은 것에 대해 이 또한 캐릭터를 구성하고 만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성차별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방송국에 여자 캐릭터 수와 남자 캐릭터 수가 비슷한 만화를 만들어 달라고 편지를 써보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제안을 필자에게 해오기도 하였다. 또한, 여자 캐릭터들이 모두 분홍색 또는 보라색 계열의 옷을 입고 리본이나 프릴이 달린 옷이나 장신구를 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차별적이라고 이야기하며 한 여자 어린이는 자신은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저런 만화들을 연거푸 보니 뭔가 자신도 분홍색을 좋아하고 리본 머리띠를 좋아해야 할 것 같다며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 나타나는 성차별적 요소들을 보는 눈을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었고, 그런 요소들이 개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사회 속에 자신들이 마주하는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평등해지려면 본인들이 어린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하기도 하였다. 이 활동을 포함한 1학기 동아리 활동을 마치며 아이들은 자신들은 차별을 겪은 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차별인지를 몰랐을 뿐 주변 곳곳에 많은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구나를 깨달았다고 말하며 한쪽 성에 치우친 관점을 보편성과 기본 바탕으로 삼는 것은 해당 성을 지니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였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으로 못하는 일이 없이 나답게 할 수 있도록 나도, 상대도 배려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

은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무비판적이고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런 경향과 더불어 생각해 볼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잘못을 인지하고 스스로의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어른들보다 더 성숙하고 빠르게 하는 경향도 있다. 아이들의 이런 경향이 아이들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했을 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이다.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변화한다. 필자가 맡은 학급 아이들도, 동아리 활동을 함께 했던 아이들도 이런 경향을 보여주었다. 앞서 사례로 언급하였던 여자 아이는 다음 명절 때 또 어른들이 성차별적인 이유로 자신이나 동생을 혼내거든 여자도, 남자도 색깔 공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여자 아이들도 '넌 왜 여자애가 힘이 그렇게 세?' 또는 '넌 왜 여자애가 그렇게 장난이 심하니?'라는 성차별적인 발언에 대해서 이제 더는 고개를 떨구지 않고 남자라서, 여자라서 또는 남자인데도, 여자인데도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남자 아이들 역시 힘이 센 여자 친구를 '여자가 뭐 이렇게 힘이 세냐?'고 놀리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가 '너는 남자애가 왜 우니?'라고 얘기한다면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감정이 있어서 울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아이들이 조금씩 '남자', '여자'라고 사회가 구분해 놓은 이분법적인 사고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상처받지 않고 '나다운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다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사회에 이미 만연한 성 편견과 차별에 대해 깊게, 제대로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또한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차별없이 평등하고 나답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행해져야 할지 방향을

잡아야 할 때이다. 더불어, 페미니즘 교육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되어 현장에서 정착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도 성차별적인 표준화된 사회의 피해자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성별로 구분되어 차이가 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왜?'라는 의문을 항상 갖는 태도와 우리가 당연히 하였던 규범들에 예민해지고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은 학교 이외의 다양한 공간과 사회에서 사람들과 마주하고 생활하며 배우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학교에 페미니즘을_ 초등성평등연구회